

■ 2020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aPD)분야 중간발표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0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aPD)분야
- 심의일시 : 2020년 8월 18일 14:00~18:30
- 심의장소 :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 심의위원 : 김미소, 김지연, 손옥주, 차정훈, 최지원

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들의 기획 역량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본 사업은 경력 1년차 이상, 만 35세 이하 문화예술기획자들 가운데 특히 문화 복지, 후원, 복원 및 재생, 지역 활성화 등 공공 영역과의 관계 안에서 예술 프로젝트 기획하는 공공 프로젝트 디자이너(art social designer)와, 문학, 시각, 공연, 전통, 음악 등 기초예술을 기반으로 실험적인 작품을 기획, 운영하는 기획자(arts producer)를 대상으로 한다. 창작자 개인이 본인의 창작세계를 펼쳐나가기 위해 필요한 '기획'이 아니라, 창작과 향유를 매개하는 위치에서 문화예술 생태계를 성찰하며 유의미한 작품이 창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객과 잘 만날 수 있도록 창제작 전체 맥락 안에서 과정과 결과를 설득, 운영, 조율하는 '기획'을 지원한다.

기획자로 활동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고, 아이디어로만 가지고 있었던 주제를 도전적으로 실험할 수 있도록 연구 과정 전체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본 사업은, 연구생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설득력 있는 방법론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타 분야 연구생들과의 열린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관심을 넓히면서, 각 장르별 특성을 이해하여 동시대 창작자의 문제의식을 총괄적으로 살피고, 그 과정에서 실험적으로 기획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기획자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최종발표 지원금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한 중간발표 심의는 1차 서류 심의, 2차 인터뷰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한 연구생 5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올해부터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의평가의 일관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범 적용한 전담심의위원회제에 따라 심의위원들은 본 사업의 1, 2차 심의 참여 이후, 3~7월 동안 매달 연구생들과 라운드테이블을 가지면서 연구생들이 연구를 전개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후, 최종발표계획서를 사전 검토하였으며,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심의회의 현장에서의 프리젠테이션에 참여했다.

심의는 1. 사전 조사연구 내용들이 구체적인가. 선발 당시의 계획과 비교하여 발표 내용이 효과적인 조사연구 방법을 수립했으며, 심화되고, 발전했는가를 고려하는 조사연구의 충실성, 2. 기획의 의도와 목적이 구체적이며, 소재 및 구현방식이 참신하고 흥미로운지를 살피는 예술적 우수성 및 차별성, 3. 인력 설계 및 일정, 예산안 등 실행 계획안이 충실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지를 기준에 두고 이루어졌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최초 지원단계에서의 계획대로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자로서 이런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여 연구를 수행해 나갔는지도 고려하였고, 이러한 기준에 의거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발표지원금을 차등 배분하였다.

중간발표 내용은 전반적으로, 연구생들이 1,2차 선정단계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을 리서치 과정을 통해 잘 극복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았다. '퀴어', '장애', '후각' 등 '마이너'하다고 여겨지는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던 연구생들은 젊은 기획자들의 문제의식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동시대 기획자들이 놓쳐서는 안 될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다만, 리서치의 역할과 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기획자로서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 등은 추후 연구생들이 개선해야 할 지점으로 지적되었고, 실제 리서치과정을 통해 성실하게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연구의 과정과 발표 내용에서는 이 주제를 풀어가기 위한 적절한 방법론에 대한 리서치가 미흡해 보인다. 리서치 내용이 피상적으로 겉돌거나, 주제와의 연결고리가 약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일부 코로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해외 사례 리서치를 계획했던 연구생들은 코로나로 인해 직접 해외 리서치를 할 수 없어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연구생들은 그 대안적인 방법을 효율적으로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내용 역시 구체화하지 못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 결과, 리서치 과정과 최종 발표 내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타당성이 부족해졌다.

연구생이 설계한 주제에 '문서'상으로 접근하는데 집중한 나머지, 창제작 환경에서 발행할 수밖에 없을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실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주제가 의미있더라도, 연구생이 계획한 기획의 틀 안에서 실행될 수 없다면 제대로 설계한 기획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편, 창제작의 과정 안에서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기보다 창작자로서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연구생 역시 눈에 띄었다. 이후 최종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본 사업의 취지를 다시 살펴, 이 부분을 재점검하고, 내용과 형식을 보완하여 사업의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본인의 기획 역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기를 바란다.

연구생 모두 사업의 예산 설계에서 항목별 산출내역에 무리가 될 만한 금액을 책정한 이들은 없었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최종발표를 위한 예산안인 만큼, 리서치의 연장에서 개인의 공부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행정업무와 기타 기획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구성한 인력에 대한 사례비 역시 삭감했다.

본 사업의 취지가 유의미한 기획의 주제를 선정하고 발전시키는 역량 뿐 아니라, 이를 실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정, 운영, 조율, 연구 등 기획자 역량 일반을 전반적으로 강화시키는데 있기 때문이다. 연구생은 자신의 역할을 '외주화'하지 말고 스스로 실행하기 바란다.

실행방법을 모호한 언어로 뭉뚱그리는 기획안, 기술한 방법론 안에서는 새로움이나 실험적인 면모를 찾을 수 없는데도 스스로 자신의 기획에 대하여 '새롭다', '실험적이다', '의미있다'는 표현을 써서 그 '성과'를 획득한 것처럼 포장하는 기획안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본인의 기획이 새롭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정말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기획자로서 어떤 목적과 목표,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전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기획자는 서류와 말로 본인이 추진하는 사업을 설득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에서 발견되는 오타자, 비문, 불성실한 타임라인, 치밀하지 못하고 계산이 맞지 않는 예산안 등은 기획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이번 연구생들은 전반적으로 기획자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서류 작업에서의 성실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앞으로도 기획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태도이므로 반드시 개선하기를 바란다.

조사연구의 기간 동안 라운드테이블에서 연구생들은 코로나 앞에 무기력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개인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문화예술 행사가 취소되고 연기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연구생들이 느꼈을 무력감을 모르는 바 아니고, 심의위원들 역시 이 상황에 대해 유사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자로서 당면한 현실에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지 않아, 처음 연구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획 연구의 취지와 방향성마저 흔들리는 것은 안타까웠다. 기존의 시스템을 흔드는 재난이 일상이 될지도 모를 시점 앞에, 기획자로서 연구생 자신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지 다시 돌아보면서, 최종발표까지 추진력과 의지를 잃지 않고 계획한 내용을 의미있게 실현하기 바란다.

2020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aPD)분야 심의위원 일동